

KWL & 하브루타 노트

과정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IaaS 기반 웹 서비스(React, Node, Next, MLOps) 개발자 과정			훈련주차	1 주차
작성일	2024/04/05	훈련교사	공욱재	훈련생 명	최유진

- ※ 아래의 항목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과 느낀부분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 ※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각 정리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세요.
- ※ 문장 완성 형태의 논술 방식으로 '다른이에게 이야기 하듯' 작성하세요.
- ※ 해당 작성본은 훈련생 평가에 활용되며, 감사 및 운영관리자 외 대외비로 다루어 처리 및 보관됩니다.

K. 알고 있는 것

HTML과 CSS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접한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자 복습하면서 다시 상기된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해.

예를 들면 선택자나 여러 태그, 속성들과(`display` 속성, `:nth-child()` 등...) 개발자 도구, `box model`을 활용하는 방법, 상속, 반응형 웹 등에 대한 내용들 등등 꽤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떠올려보는 한 주가 됐던 것 같아.

GUI, CLI와 같은 용어들의 뜻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어.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실제 파일탐색기나 `cmd`에 빗대어 표현을 해주셔서 색다르게 다가왔어.

그것과 연관지어서 터미널의 기본적인 명령어들(`ls`, `new-item` 등...)도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살았어서(?)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지.

W. 알고 싶은 것

반응형 웹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사용한 예제가 궁금해졌어.

그리고 처음 배울 때부터 `class`와 `id`를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아직도 궁금증을 해결을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CSS를 적용하면서의 꿀팁들이 있지않을까 궁금해지네. 예를들면 부모요소가 제일 힘이 세니까 자식요소부터 `style`을 적용한다거나(추측)? `class name`을 모두 외우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class`를 지정해서 `style`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는 작업을 하는 중에 이미지 `url`을 넣는 과정에서 `style` 태그를 이용하여 넣었어. 그리고 `style` 태그 안에서 크기조정을 했지만 크기조정에 실패했어. 왜일까? (`img` 태그에 직접 `src`와 `style`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넣는데 성공하긴 함)

L. 알게 된 것

이번주에 내가 알게 된 것 중에 제일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적은 코드가 내가 생각한 것 처럼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의 태도라고 생각해. 이전에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거나 내가 읽은 문서나 예제들을 보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저 짐작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거나 대충 검색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런 단어들을 마주하는 방식을 배웠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차근차근 알아가는거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보면 기본기도, 암묵지도 쌓이겠지!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한 작업물들은 다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실패한 작업물들이나 그날 코딩한 내용을 회고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말이야.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블로그에 회고하는 글 올린 걸 많이 보긴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습관인지는 몰랐거든.

여러가지 단축키랑 `VSCODE` 확장 모듈들에 대해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셨는데 정말 꿀팁인 것 같아. 사실 나는 항상 마우스로 같이 작업하기에 바빴거든.

이번 주에는 내가 이전에 이미 접해보았던 **HTML**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몇년만에 다시 상기시켜봤어. 사실 알고있는 부분이자 알게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a, list, input** 태그, 그리고 **CSS**의 수많은 속성들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알아가는 날이었어.

내가 이전에 까다로워했던 레이아웃을 나누는 연습을 통해 상기시켰어. **display, justify-content, flex** 등을 이용하여 정렬도 해봤고, 상속과 연관을 지어보기도하고, 텍스트를 수직, 수평 정렬도 해보면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보는 시간이었어.

특히 **display**의 **block, inline, inline-block**에 대해,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됐어. 이를 통해서 **flex** 속성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게 왜 편하고 왜 사용하는지는 생각을 못해봤던 것 같은데 왜 편한지도 알게됐지.

그러면서 **grid**를 통해서도 레이아웃을 나누는 법을 확실하게 터득하게 됐어. 예제를 통해서 **grid-template-row나 repeat**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했고 **grid-row-start/grid-row-end**는 **grid** 칸의 개수인줄 알았는데 줄의 개수(?)인 점을 알게 된게 기억에 남네.

그리고 간접 선택자를 이용해서 **class**나 **id**를 대신하여 지정하는 법을 배웠어. 지금까지는 수많은 **class name** 속에서 허덕이고있었는데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었지. 전날에 했던 작업에서 **class**를 모두 지우고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

반응형 웹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시켜봤어. 이전에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지나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려고 했어. 그 중에서도 미디어 쿼리에서 미디어 유형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 공부했어.

반응형 웹과 관련해서 강사님이 요새의 트렌드(?)는 **mobile first design**이라고 하셨어. 요즘의 시대상을 바라보니 완전 맞는 말이라. 앞으로 실행해보려고 !

추상화, 메타데이터, 암묵지 등 컴퓨터 일반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하나씩 배워가고있는 중이다.

아 그리고 **margin-left: auto**로 하면 요소가 우측정렬이 되더라 !

수행중인 과업

지금은 초심자의 마음으로 **HTML**과 **CSS**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중이다. 그러면서 놓치고있던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넣고있지. 그러면서 모르는 것을 마주했을 때, 스트레스 없이 차근차근 알아가는 태도에 대해 연습도 되고있어.

학습자 성찰

해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을 마주했을 때의 태도를 배운게 앞으로의 개발자 생활에 있어서 제일 의미있고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아. 그러다보면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즐기면서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개발 공부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아니 어쩌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 만을 생각해온 것 같아. 이해가 되서 내 것이 된 지식들이라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텐데 몇몇 까다로운 부분에서는 그러지못한걸 보면 효율만을 생각하고 이해가 아닌 암기를 했나봐. 효율은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강사 코칭 (강사 작성)